

반세기의 역사여 말을 좀 해다오

- 지난날의 발자취 되돌아보면서 새 50년의 갈 길을 설정하고 힘찬 새 출발을... -



寒梅山房主人 白甫

‘못난 자손은 조상을 팔아먹고 못난 백성은 역사를 팔아먹는다’는 속설이 있다. 죽은 역사는 말이 없고 살아있는 역사는 영원히 말한다고도 하였다. 너무나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파악하였다. 역사는 촌각도 쉬지 않고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역사는 기록을 남기고 미래의 거울이 된다. 그래서 ‘溫故而知新’이라 하였던가. 필자는 ‘역사란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인간이 엮어내는 종말이 없는 연속드라마’라고 정의한다.

역사란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인간이 엮어내는 종말이 없는 연속드라마

【제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일시와 장소가 아직 미정이지만 우리법인이 주최할 행사의 간판이름이다. 49년 전인 1960년 10월에 부산동래의 부산원예고등학교 강당에서 제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깃발을 세운지 올 해로서 제50회를 헤아리게 된다. 되돌아보면 지나 온 50년 세월에서 이 대회운동이 우리의 농업과 국가발전에 기

여하고 남긴 발자취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대회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여기에 쌓아 온 공적을 나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부끄러운 과오도 지탄받을 허물도 없다. 농민들 스스로가 확고한 농심으로 한 해, 또 한 해의 연륜을 땀과 눈물로 쌓아서 제50회를 내세우게 되었음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가 말이다.

이 글의 모두에서 필자는 ‘역사란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인간이 엮어내는 종말이 없는 연속드라마’라고 정의하였다.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자면 어떤 계기(목적과 목표, 이념)가 주어지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조직이란 수순을 거쳐서 운동을 일으키는 집단행동이다.

오늘의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연구소(?)의 연원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전후(?)의 한국농업과학연구소가 원조이다. 이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초대소장이 김종 선생이다. 김종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의 대표적인 종묘회사인 다끼이종묘주식회사의 연구 농장의 농장장이셨던 우장춘 박사를 모시고 함께 근무한 분이다. 해방 후의 한국의 채소종자를 자급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를 모국에 모셔오는 주동적인 역할을 한국농업과학연구소와 소장인 김종 선생이 맡아서 추진하신 분이다. 우장춘 박사를 모셔 와서 한국의 채소종자의 육종과 개량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예기술원으로 개편되어 채소종자의 육종과 원예기술발달의 요람이 된다. 이야기가 엇길로 흘러서 좀 길어졌지만 이 정도의 전제를 달지 않으면 우리 대회운동의 발단을 말할 수 없어서이다.

처참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으로 포성이 멎었다. 이 당시에 김종 선생은 대구연초시험장장으로 계시면서 경북대학교 농과대학과 필자의 모교인 청구대학에 출강하고 있었다.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필자는 1951년 3월에 부상으로 일몰이들의 시력과 청력을 잃고 중증의 장애를 안고 휴전직후에 제대하여 실직자가 되어 오갈데가 없는 처지였다. 중앙종묘의 종묘카달로그를 편집해서 만들어주고 계시던 김종 선생의 편집일을 도우면서 심부름한 것이 인연이 되어 김종 선생의 추천으로 필자가 중앙종묘에서 창간을 추진하던 「새농사」의 편집담당 실무자로 직장을 얻어서 부산으로 내려간 것이 1954년 봄이었다. 잡지창간 실무자로 취직(?)을 하여 1년이 지나도록 창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잡무만 시키는데 불만을 품고 1955년 5월경에 중앙종묘를 그만두고 말았다. 약 6개월을 울릉도에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중앙종묘로 불러 내려가서 서둘러서 1966년 1월 1일자로 「새농사」 제1호(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제본소에서 창간호를 펼쳐보던 나의 감격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시작되기까지...

「새농사」는 전국농업기술자대회운동의 모태이다.

이 나이의 나 자신이 80평생을 되돌아볼 때 「새농사」의 편집실무자로 인연을 맺은 것은 운명적인 전기가 된 것이다. 원고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 농업관련 시험연구기관의 연구관과 면식과 친분을 넓힐 수 있었고 「새농사」의 기자신분으로 장관 등 고위공직자와 인터뷰도 하였다. 독자들은 중앙종묘의 고객들인 전국의 지식인 독능자들이었다. 이런 분들의 농장을 방문하여 취재해서 지면에 실리면 본인은 물론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읽을거리가 되었다. 농업용으로 처음 등장한 포리에치렌과 비닐의 사용체험을 럭키화학공업사(오늘의 LG그룹의 전신)와 공동으로 현상모집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잡지지면에 중앙종묘의 종자선전은 극려배제하고 순수한 농촌문화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편집인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선친께서 창업하신 '중앙종묘상회'가 주식회사로 개편 발전한 것은 1954년 전후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박갑수 사장은 패기만만한 30대의 초반으로 기업 경영능력은 물론 사업에 대한 욕망이 열정적이었다. 사실상의 고문인 김종 선생의 권고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한국최초의 민간육종농장의 설립이라던가, 「새농사」의 창간, 전국농업기술자대회운동을 일으킨 일등등 업계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 달려 나갔다.

「새농사」창간으로부터 5년 후인 1960년. 역사발전의 일대분수령인 4·19학생의거가 발발하였다. 이 해 6월에 4·19의거(혁명?)의 진원지인 마산에서 김병기(?농교장과 기독교농민학원원장 등 역임) 선생과 여대기(김병기 선생과 진주농림의 선후배로 독농가) 선생이 상경하여 내 편집실을 찾아오셨다.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두 분 선생님은 「새농사」가 전국의 농사 잘 짓는 농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행

사를 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였다. 경상도 농사꾼과 전라도 농사꾼이 서로 만나서 친교도 맺고 체험도 서로 교류하면 좋을 거야. 이 소박하고 순수한 제안이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점화시킨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전에 『새농사』의 발행인인 중앙종묘의 박갑수 사장에게 두 분의 제안을 보고 드렸다. 박사장은 일언지하에 '좋다! 해 보지...' 시원한 즉석결제를 얻어 낸 것이다.

행사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전국농민대회, 전국독농가대회 등등, 앞으로의 농업은 농업기술과 경영기술이 병립해야 한다는 편집참고로 읽던 일서에서 힌트를 얻어서 【전국농업기술자대회】라고 책상머리에 크게 써 붙이고 몇일 동안 되뇌어 보았다. 박갑수 사장도 행사이름이 좋다고 하면서 너무 거창하지 않느냐고 한다. 평소 존경하여 온 당시 정남규 농사원장을 예방하여 대회행사의 말씀을 올리니 '굿 아이디어!'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나도 힘껏 도울 것' 이라고 하신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다.

50년전 제1회 전국대회의 행사안내서(프로그램)는 지금 펼쳐보니 당시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뇌리에 펼쳐진다. 거창한 간판으로 내 세운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이지만 모인 인원이 150명 전후이지만 내용은 모두가 학습행사였다. 소수의 참가자들은 모두가 숙소에서 밤새면서 농사이야기로 꽃을 피우면서 친교를 다지고 있었다. 대회 후 돈벌이와 관련 없는 적지 않은 돈은 썼지만 박갑수 대회장은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일했다'고 칭찬과 격려의 인사를 들으니 무척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1961년 10월, 제2회 전국대회가 대구청구대학에서 열린 그 해 5월에 5·16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역사는 또 한 번 소용돌이 쳤다. 이 대회에 당시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류달영 본부장님은 작은 경비행기편으로 참가하였고, 육군소장인 박경원 경북지사의 군복차

림이 인상적이었다. 정남규 농사원장은 시험국장과 지도국장을 대동하고, 윤상원 서울대농대학장 등 농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거 왕림하여 나의 모교인 청구대학 강당을 가득 채운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제3회 전국대회를 1962년 대전 기독교농민학원에서, 이듬해 1963년에 제4회 전국대회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다. 연초부터 나도 박갑수 대회장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전국적인 큰 행사로 팽창한 규모와 돈과 집행능력 등 중앙종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제4회 전국대회에서 우리협회 창립

이럴 즈음에 필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의 이진수 부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보니 제4회 전국대회를 자신들의 협회와 대회경비를 반반씩 공동부담하고 공동주최하자는 뜻밖의 제안이었다. 이 협회의 회장이 유석창 박사이고 건국대학교의 설립자로서 현재 재단이사이라고 소개한다. 나도 박갑수 대회장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월간『새농사』 편집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가 제4회 전국대회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대회장에 유석창 박사를, 부대회장에 박갑수 사장이 맡게 되었다. 오늘에 와서 되돌아 볼 때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박갑수 사장이 그동안에 대회육성에 투자한 돈과 명성과 브랜드가치를 모든 기득권을 깨끗이 포기하고 미련 없이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존경한다. 이 결단만이 아니라 우리협회가 초창기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농업기술진흥관 건립운동에도 최고액의 거액을 쾌척해 준 일을 어찌 잊으랴. 인농(仁農은 박갑수 회장의 아호임) 박갑수 회장은 우리 대회운동의 창시자로, 상허 유석창 박사는 우리협회의 창립자로서 그리고 성천 류달영 박사는 우리협회의 중흥의 영도자로서, 이

칼럼 : 제50회 전국대회에 즈음한 감회

세분이 이룩해 놓으신 크신 업적과 공로는 길이길이 우리 대회와 협회의 역사와 함께 빛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발전상을 50년 전과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으랴! 한강변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0대 선진국반열에 턱걸이하게 되었다. 세계를 향해서 IT강국이라 목에 힘을 주면서 으스대고 있다. 그러나 5,000년의 긴긴 세월을 이 땅의 백성들을 먹여 살려 온 기둥산업이었던 농업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산업사회로 경제발전을 해 오는 동안 우리 농민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농촌의 노령화와 공동화를 가져왔다.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였는데 수입개방으로 홍수처럼 밀려드는 값싼 농산물로 생산기반의 붕괴를 위협받고 있다. 전통적인 영세소농구조의 문전옥답의 농지를 개발과 산업화에 헐값으로 제공하였다. 성장의 그늘에 가려서 쇠퇴의 길을 걷다가 존폐의 위기에 몰린 오늘의 농민, 농업, 농촌을 경쟁력이란 처방만으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농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농촌의 농협과 영농조합법에 산업자본과 소비자가 투자를 촉진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귀농하여 한국농업의 세계화를 선도하여야 한다.

다시 일어서서 뭉쳐서 새 출발하자.

지난 50년 동안 우리법인이 주최해 온 전국대회는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소중한 마음으로 얻은 결과를 놓고 정부당국자의 정책을 직접 듣고 잘못 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건의와 토론과 더러는 거리에 나서서 데모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농민들이 창출한 농업기술과 체험을 서로 교류하는 행사였다. 산업화

와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대회행사의 기능도 쇠락의 길로 몰리게 되었다. 사흘 하던 행사가 이틀로, 이틀행사가 하루로, 하루 행사가 반나절로 오므라들었다. 몇 사람의 강연이나 듣고 박수나 쳐주는 행사로 전락한 것인가.

50년의 역사는 왜 말이 없는가? 말이 없는 역사는 죽은 역사이다. 말없는 역사를 말을 하게하는 것은 현 집행부와 뜨거운 농심으로 긴긴 세월 동참해 온 회우동지들의 책무이다. 우리법인이 내어 건 3대혁명의 무용지물 구호가 되었던 말인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나침반은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를,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이루자는 우리의 지표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회가의 후렴 끝 구절을 다시 외쳐 본다. '정신혁명 푸른 깃발 높이 들고서 일어서라 뭉쳐라 앞서 나가자!' 지나 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잘 살펴서 읽어야 앞이 보일 것이다. 제 50회의 연륜이 자랑스럽거던(?) 이번 제50회 전국대회가 힘찬 새출발의 행사를 만들어 내야한다. 근본이 바로서면 길이 열린다(本立而道生)고 하지 않았던가.

필자는 이번 50회 대회까지 살아남아서 참가한다면 단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참가한 유일한 생존자라고 누가 알려준다. 이게 어찌 자랑거리인가? 나는 오히려 창피하고 부끄럽다. 누가 나더러 '왜 대회에 참가하느냐?' 고 묻는다면 '50년 동안 대회에서 만난 동지들의 늙은 얼굴을 보고 싶어서...' 라고 답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전철로 이촌역에 내려서 농업기술진흥관의 모퉁이를 돌면서 붉은 벽돌벽면에 붙어 있는 통일회원 16,013명의 명판을 향해서 삼보합장하고 마당에 들어서서 성천 류달영 박사의 흉상에 삼보합장하고 현관의 상허 유석창 박사의 흉상을 향해서 삼보합장을 하고 3층 내 골방 작업실로 기어 올라간다. ㉞